

조기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법인세비용과 유효법인세율에 미친 영향

김 정 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종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화함에 따라 K-IFRS의 도입이 이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법인세비용과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일기업과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를 조기 적용한 별도재무제표 작성 기업들 중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K-IFRS에 의한 법인세비용은 K-GAAP에 의한 법인세비용보다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유효세율은 K-GAAP에 따른 유효세율보다 줄어들었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한 K-IFRS 조기 적용기업의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표본 수 등의 부족으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 **주제어** : 국제회계기준(K-IFRS), 법인세비용, 유효세율

* 세무사, 경영학 박사

** 투고일 : 2012. 10. 23. 심사일 : 2012. 11. 12. 심사완료일 : 2012. 12. 10.

I. 서 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일부 금융회사를 포함한 상장기업 중심을 대상으로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 대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이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자신의 자본조달 및 투자활동뿐만 아니라 법인세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법인세비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조세정책입안자와 회계연구자들에게 기존의 법인세비용이 기업의 규모, 자본구조 및 수익성에 따라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하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K-GAAP에서 K-IFRS로의 회계기준 전환이 기업의 법인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K-IFRS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중심인 K-IFRS는 기존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인 K-GAAP보다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회계정보 유용성의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K-IFRS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가치 중심의 K-IFRS는 종전의 K-GAAP보다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회계정보 유용성의 감소를 완

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K-IFRS를 적용한 경우 K-GAAP에 비하여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K-IFRS는 장·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이익조정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익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세당국이 세법을 개정하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할 경우 국가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세수 부족을 방지하려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회계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법인세비용과 유효세율의 변화로 이어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세 부담과 국가의 세수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K-IFRS를 조기 적용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K-IFRS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해석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한 세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와 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에 미치는 사례 중심의 연구¹⁾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K-GAAP 대신에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법인세비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동일기업의 동일기간²⁾을 대

1) IFRS의 도입이 세무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략 10여 편 정도이나 대부분의 연구가 IFRS의 도입으로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세무상의 쟁점과 조화 방안 등의 법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정운오 등(2011)의 연구인 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부담이 영향을 받는지를 회계와 세무상의 비교연구를 한 사례연구가 대표적이다.

2)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경우 2009년부터 K-IFRS를 적용할 수 있다. 재무

상으로 서로 다른 회계기준(K-IFRS, K-GAAP)의 적용결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K-IFRS의 도입이 기업의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은 비교목적으로 각각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무제표도 K-IFRS를 소급 적용하여 재작성하였다.

전년도에 K-GAAP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K-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하여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한 유효세율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한 법인세와 유효세율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적용되는 K-IFRS의 법인세비용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 먼저 Ⅱ.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유효세율과 K-IFRS의 도입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Ⅲ.에서는 연구설계를 제시하고, 이어 Ⅳ.에서는 표본 선정과 자료를 설명하고, Ⅴ.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Ⅵ.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기술한다.

제표는 일반적으로 직전연도와 당해 연도를 비교하여 표시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경우 2008년도 재무제표도 K-IFRS의 2008년 재무제표와 2009년 작성된 K-IFRS를 바탕으로 동일기업의 동일연도의 유효세율이 회계기준의 변경(K-GAAP에서 K-IFRS)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할 수 있다.

II.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1. 유효세율의 정의

유효세율은 조세정책입안자들에 의한 조세정책의 수립과 세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Omer *et al.*, 1991), 기업 활동에 미치는 조세의 영향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Porcano, 1986). 재무제표정보를 제공해주는 유효세율은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회계연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서 조세를 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인 정의는 간단하나 현실적으로 조세와 이익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체적인 측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유효세율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유효세율과 한계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을 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는 반면(Porcano, 1986),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과세소득이 1원만큼 증가할 때 부가되는 조세로 정의된다. 한계세율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측정하도록 설계되는데 반하여, 유효세율은 조세부담의 분포와 기존 투자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유효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당기의 법인세비용을 다양한 보고이익(매출총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 유효세율이다. 법인세비용을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과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로 구분된다. 여기서 법인세비용은 개념상 이익에 비례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법인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가장 가까운 보고이익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조정 후 법인세비용을 다양한 보고이익으로 나누어 계

산한 유효세율이다.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결산재무제표의 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기한 내에 법인세비용을 산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비용을 신고납부한 후 정부의 법인세비용에 관한 조사 및 결정에 의하여 소득이 과소신고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추가 징수하며, 반대로 과오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을 환급하여 준다. 따라서 조정 후 법인세는 당해 연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등에 다음 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법인세 추납액을 가산하고 법인세환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노현섭 등 2007). 조정 후 법인세비용을 매출총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과 조정 후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납부한 당기법인세를 당해기간의 다양한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계산한 유효세율이다. 여기에는 법인세비용을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나눈 유효세율과 법인세비용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나눈 유효세율이 있다.

2. 선행연구

가. 유효세율의 측정

유효세율을 측정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Fullerton(1984)은 광의의 유효세율의 정의를 유효세율(유효법인세율)과 한계세율(한계법인세율)로 분류하고 각 세율의 적절한 측정과 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계세율이 유효세율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법인세비용률의 세율체계,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누계액, 세법 변경, 인플레이션, 자본조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효세율이 이익흐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측정치이고, 한계세율은 투자유인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측정치라고 주장하였다.

Spooner(1986)는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측정한 선행연구

들을 정리하고 유효세율의 측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표본선정 문제, 산업분류 문제, 근로소득세 및 소비세와 같은 다른 조세를 포함에 따른 문제, 조세와 이익 간의 관계에 따른 문제,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Omer *et al.*(1991)은 유효세율을 측정하는 데 관련된 실증 정절차를 논의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효세율의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유효세율 측정치 수준에 따라서 기업의 순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러한 순위는 이용된 유효세율 측정치에 따라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보고방식의 차이가 기업규모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노현섭(1997)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효세율 측정치를 요약하여 경제적 세율, 매출총이익률 및 회계이익률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의 유효세율이 소기업의 유효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인세비용 감면과 산업별 조세부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Zimmerman(1983)은 기업의 정치 정비용에 대한 구성요소의 대리변수로서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기업규모가 유효세율과 양(+)의 관계를 가져 정치적 비용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서로 상충되고 있다. 일부 연구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음(-)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다른 연구들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양(+)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기업규모가 유효세율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효법인세비용률의 변동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Gupta and Newberry(1997)는 유효세율이 기업의 재무의사결정(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한 대리변수로 레버리지를 사용), 투자자산결정(기업의 자산구조에 대한 대리변수로 자본집약도, 재고자산비율과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사용)과 영업활동(수익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자산수익률을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tickney and Magee(1982)는 1978년과 1980년의 2년 동안 2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이 기업의 규모, 자본집약도, 해외영업활동비율, 천연자원개발활동비율, 부채의존도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들은 부채의존도가 높았고, 자본집약적이고, 천연자원개발활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반면, 기업규모 및 해외영업활동비율과 유효세율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Wang(1991)은 만약 순손실이 기업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에도 순손실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 결과, 순손실을 통하여 유효세율에 미치는 기업규모의 간접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순손실은 기업규모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K-IFRS 도입효과

IFRS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로는 IFRS의 도입이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이익의 질의 개선 여부로 판단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Barth *et al.*(2008)은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21개국의 기업과 자국의 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의 이익의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IFRS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의 수준이 낮고, 이익의 가치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alsari *et al.*(2010)은 2005년부터 IFRS 도입이 의무화된 터키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적용이 이익의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IFRS 도입은 적시성과 이익의 보수주의를 모두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IFRS의 도입이 재무보고의 질을 향상시켜 이익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과는 달리 Tendeloo and Vanstraelen(2005)은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IFRS의 도입이 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자국회계기준과 K-IFRS를 적용한 기업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Devalle *et al.*(2010)은 IFRS 도입에 따른 이익의 가치 관련성이 증가하는지를 유럽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후 이익과 주가간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본 반면,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자본의 장부가치가 오히려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IFRS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회계기준이 과거의 GAAP에서 새로운 IFRS로 변화됨에 따라 이익의 질이 개선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럽의 경우도 IFRS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후 IFRS가 정착되면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의 도입은 비단 회계기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회계환경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한 업종별, 유형별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무상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와 IFRS의 도입으로 인한 모든 기업들에게 미치는 공통적인 영향과 이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

구한 김규호(2008)는 특히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업종의 보험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같은 결산조정사항이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항목이라고 지적한 후 이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K-IFRS가 기업에 회계정책의 선택권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이 법인세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회계정책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운오 외(2011)는 새로 도입된 K-IFRS 대신 K-GAAP 제공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비용 부담에 실증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이전의 기준인 K-GAAP보다 실증적으로 법인세비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으나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한 결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K-IFRS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운오 외(2011)를 제외하고는 K-IFRS의 도입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비용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법률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검토에 초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에 조기 적용한 14개 기업과 2010년에 조기 적용한 기업 47개 기업을 분석하여 K-GAAP에서 K-IFRS의 전환시의 법인세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나아가 회계기준의 변화(K-GAAP에서 K-IFRS)가 기업의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K-IFRS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비용의 단순합계액³⁾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

3)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여러 개의 회사들의 법인세비용이 단순 합산될 경우 순액(예를 들어, 모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이나 종속기업의 경우 당기순손실인 경우)으로 표시됨으로써 법인세비용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할

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K-IFRS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비용과 유효세율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표본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유효법인세율이 음(-)인 경우를 제외한 표본수를 사용함으로써 유효세율 분포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모수검증방법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이 아니라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 순위검정(Wilcoxon's matched pairs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2011년부터 일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K-IFRS로 인하여 정부의 조세정책입안자, 과세당국, 규제기관, 그리고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비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2011년부터 K-IFRS의 의무적 도입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K-IFRS의 정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의 2008년도와 2009년도 K-GAAP와 K-IFRS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여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K-IFRS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09회계연도부터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회계기준원에서 정한 사전공시제도⁵⁾에 따라 도입 1년 전부터

4)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적용 체계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2010년	2011년 이후
K-IFRS 조기 적용 기업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140면, 2009년 12월.

5) 사전공시제도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변화로 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기업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준비를 위하여 회계시스템 정비, 전문인력확보 등에 사전 작업하도록 유도함.

※ 각국의 사전공시제도의 비교

구 분	EU(유럽연합)	호 주	홍 콩	캐나다
도입시기	2005년	2005년	2005년	2011년
공시시기	적용 2년 전부터 단계적 공시	적용 2년 전부터 단계적 공시	적용 1년 전	적용 3년 전부터 단계적 공시
규정방식	감독당국의 지침(권고)	회계기준 제정(의무)	공인회계사회 제출(권고)	감독당국의견서(의무)
규정내용	-2년 전 :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1년 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계량정보)	-2년 전 :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1년 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계량정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3년 전 : 전환계획 -2년 : 전환계획 update,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1년 전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계량정보)
공시방법	회사선택(감사 여부도 선택)	주식기재	주식기재	경영진단의견서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140면, 2009. 12.

인 2008년 1월 1일을 K-IFRS 전환일로 간주하여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2008년 1월 1일을 K-IFRS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은 제1101호(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도입준비 촉진을 위해 K-IFRS 적용 1~2년 전부터 기업의 도입준비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사전공시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전공시제도로 인하여 K-IFRS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2011년도 적용 시점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 중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K-GAAP과 K-IFRS의 기준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되므로 두 회계기준의 차이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사전공시제도 정보를 활용하면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은 경제적 실질이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회계환경에 따라 회계기준만 달리 적용될 경우, 두 회계기준 간의 차이로 인한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유효세율의 변화를 직접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입안자나 회계연구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사전공시제도 사항을 이용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K-GAAP과 K-IFRS 간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비교재무제표를 통하여 두 회계기준 간 법인세비용의 차이와 유효세율의 차이를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조사해보고자 한다.

2. 유효세율에 대한 대리변수⁶⁾

본 연구에서는 유효세율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효세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효세율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나눈 유효세율 1, 법인세비용을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나눈 유효세율 2, 그리고 법인세비용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율 측정치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측정치는 기업이 당기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 유효세율이다.

$$\text{유효세율 1} = \text{법인세비용} /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두 번째 측정치는 기업의 당기 법인세비용을 당해기간의 여러 가지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유효세율을 계산한다.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① 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net income plus depreciation : NIPD),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전자본(working capital from operation : WCFO),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ash flow from operation : CFO)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김정교, 1994). 본 연구에서는 현금흐름 측정치로서 NIPD와 CFO를 사용한다.

$$\text{유효세율 2} = \text{법인세비용} / (\text{당기순이익} + \text{감가상각비})$$

$$\text{유효세율 3} = \text{법인세비용} / \text{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본 연구에서는 동일기업의 동일연도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변경(K-GAAP에서 IFRS)으로 인한 유효세율과 법인세비용, 그리고 보고이익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다.

흐름으로 나눈 유효세율 3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효세율의 측정이 있으나, 동일기간의 동일기업의 서로 다른 회계기준의 변화(K-GAAP에서 K-IFRS)로 인한 유효세율의 차이를 알아보는 본 연구는 적용하는 기간의 세무상의 실제 납부세액은 비교할 수 없으므로 비교 가능한 유효세율 1, 2, 3을 적용하였다.

IV. 표본 선정과 자료

본 연구는 K-IFRS 조기 적용 기업의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법인세비용과 유효세율의 효과에 대하여 K-GAAP와 K-IFRS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와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에 수록된 기업 중 표본의 동질성을 충족시켜 주는 다음과 같은 표본선정기준에 맞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 2009년과 2010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
- (2)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3)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작성의무에 따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
-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이 등이 음(-)이 아닌 기업

2009년과 2010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으로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그 영업상의 특징 및 재무제표 구성항목들이 일반기업의 경우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분석대상기업의 동질성을 위하여 제외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조기 적용 기업의 경우 비교 대상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유효세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선정기준

구 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2009	2010	합계	2009	2010	합계
조기 적용 연도						
조기 적용 기업 수	14	47	61	14	47	61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8)	(26)	(34)	·	·	·
계	6	21	27	14	47	61
(-) 매출총이익, 세전이익, 법인세비용이 음(-)인 기업	(4)	(8)	(12)	(10)	(28)	(38)
합 계	2	13	15	4	19	23

본 연구를 위하여 2009년도에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 14개사와 2010년도에 조기 적용한 기업 47개사를 분석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의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코스피(KOSPI)기업이 7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코스닥(KOSDAQ)기업이 7개이다.

2009년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 중 코스피의 경우 제조업이 4개, 운송업 1개, 서비스업은 1개이며, 코스닥의 경우 제조업이 6개, 서비스업이 1개이다. 반면 2010년의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경우 코스피(KOSPI)기업이 25개, 코스닥(KOSDAQ)기업이 22개 기업이다. 이 중 코스피의 경우 제조업이 19개, 운송업 1개, 도·소매업 1개, 통신업 1개, 서비스업은 3개이며, 코스닥의 경우 제조업이 15개, 통신업 1개, 출판업 1개, 도소매업 1개, 서비스업이 4개이다.

따라서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9년도와 2010년도 K-IFRS 조기 적용 기업의 산업 구분

산 업	2009년 조기 적용 기업 수		2010년 조기 적용 기업 수		합 계
	KOSPI	KOSDAQ	KOSPI	KOSDAQ	
제 조 업	5	6	19	15	45(74%)
서비스업	1	1	3	4	9(15%)
운 송 업	1	·	1	·	2(3%)
도소매업	·	·	1	1	2(3%)
통 신 업	·	·	1	1	2(3%)
출 판 업	·	·	·	1	1(2%)
합 계	7	7	25	22	61(100%)
	14		47		

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3>은 변수별로 전체 표본기업을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1과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2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비용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 1에서는 K-IFRS를 적용했을 때 평균이 124.9649억원, 중위수가 17.4011억원이고, K-GAAP를 적용했을 때 평균이 225.9847억원, 중위수가 14.0427억원으로서 K-IFRS와 K-GAAP 모두 극단적인 오른쪽 꼬리를 가진 비대칭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 2에서는 K-IFRS를 적용했을 때 평균이 80.9935억원, 중위수가 3.9641

억원이고, K-GAAP를 적용했을 때 평균이 108.7732억원, 중위수가 4.3936 억원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 1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오른쪽 꼬리를 가진 비대칭분포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매출총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등 이익측정치의 경우에도 대체로 오른쪽 꼬리를 가지고 있으나 분포의 비대칭성은 법인세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한 영향과 우리나라 법인세비용이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전에 기대한 것과 일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

기술통계량

(단위 : 억원)

변 수 ^가		평 균		표준편차		최 대 값		중 위 수		최 소 값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법인세비용	1	124.9649	225.9847	193.8400	415.9237	588.6800	1,471.5000	17.4011	14.0427	0.8211	0.5008
	2	80.9935	108.7732	191.4007	261.2152	848.9000	1,191.0000	3.9641	4.3936	0.1574	0.1422
세전이익	1	637.8336	1,034.6280	940.1763	1,916.7181	2,864.7000	6,696.4000	145.4404	139.2215	2.1637	3.4983
	2	534.7948	803.1918	1,441.2496	2,202.4774	7,057.0000	1,084.0000	25.6334	32.4727	1.0687	0.7671
당기순이익	1	514.3955	803.0709	769.1608	1,503.8503	2,350.1000	5,225.7000	100.5850	106.0145	4.1568	2.9976
	2	453.4042	691.0596	1,256.3124	1,951.1407	6,008.1000	9,649.5000	21.6693	27.3559	0.6471	0.1584
유효세율 (연결 F/S)	1	0.2128	0.2170	0.1139	0.0968	0.4762	0.3739	0.1995	0.2288	0.0505	0.0320
	2	0.2515	0.3135	0.1415	0.1794	0.5682	0.6634	0.2492	0.3002	0.0511	0.0330
	3	0.2452	0.2293	0.2560	0.1892	0.9158	0.6814	0.1782	0.1879	0.0288	0.0099
유효세율 (별도 F/S)	1	0.1890	0.2113	0.1115	0.1716	0.4990	0.8700	0.1725	0.1687	0.0061	0.0217
	2	0.2613	0.5843	0.2119	0.7223	0.9960	0.7196	0.2085	0.2259	0.0061	0.0222
	3	0.2243	0.2096	0.4064	0.2140	0.9803	0.9411	0.2103	0.1404	0.0055	0.0171

7) 각 변수에 적용되는 집단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 1은 연결재무제표 적용하는 기업 중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대상을 의미한다. 모집단 2는 별

2. K-GAAP와 K-IFRS 간의 차이 비교

가. K-GAAP와 K-IFRS 간의 법인세비용의 차이 비교

<표 4>는 기업의 법인세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Panel A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의 평균은 124.9억원이고,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 평균은 225.9억원으로 K-IFRS를 적용한 경우 법인세비용이 감소(-103.0억원)하였으나, 비모수검증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Wilcoxon's matched pairs signed rank test)에 의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nel B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의 평균은 81.0억원이고,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 평균은 10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이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보다 감소(-27.7억원)하였고, 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에 의한 분석에서 5%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재무제표 기업 중 매출총이익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유효세율의 경우는 모집단 1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며, 모집단 2는 법인세비용을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로 나눈 값이고 마지막으로 모집단 3은 법인세비용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초기 K-IFRS 적용 기업의 법인세비용

Panel A :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 제외		
	평 균		z(p-value)
	K-IFRS	K-GAAP	
법인세비용	124.9	225.9	-0.847(0.397)

Panel B :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 제외		
	평 균		z(p-value)
	K-IFRS	K-GAAP	
법인세비용	81.0	108.7	-2.112(0.035)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전체 상장기업 수준에서 구 회계기준인 K-GAAP에 비하여 K-IFRS의 적용으로 법인세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별도 재무제표 적용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나,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이 법인세비용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K-IFRS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비용의 단순합계액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K-GAAP와 K-IFRS 간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차이 비교

<표 5>는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Panel A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의 평균은 637.8억원, 514.3억원이고,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평균은 1,034.0억원, 80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각 이익이 감소(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6.2억원, 당기순이익 -288.7억원)하였으나 그 차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에 의한 분석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Panel B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의 평균은 534.7억원, 453.4억원이고,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평균은 803.1억원, 69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각 이익의 감소(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68.4억원, 당기순이익 -237.6억원)하였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각 이익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으며, 그 차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에서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K-IFRS 조기 적용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차이 비교

Panel A :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 제외		
	평 균		z(p-value)
	K-IFRS	K-GAAP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37.8	1,034.0	-1.099(0.272)
당기순이익	514.3	803.0	-0.345(0.730)

Panel B :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 등이 음(-)인 기업 제외		
	평 균		z(p-value)
	K-IFRS	K-GAAP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34.7	803.1	-2.257(0.024)
당기순이익	453.4	691.0	-1.924(0.054)

법인세비용과 마찬가지로 K-IFRS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단순합계액으로 인해 각 이익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재무제표의 K-IFRS 도입이 기업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각종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로 인한 기업의 이익의 감소 영향과, 구 회계기준에 따른 각종 영업 외 비용항목들이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반영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K-GAAP와 K-IFRS 간의 유효세율의 차이 비교

<표 6>은 기업의 유효세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Panel A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는 기업집단 1, 법인세비용을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로 나누는 기업집단 2, 그리고 법인세비용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나누는 기업집단 3으로 나누어 유효세율을 분석하였다. 기업집단 1, 2, 3의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유효세율의 평균은 0.2128, 0.2515, 0.2452이고,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유효세율의 평균은 0.2170, 0.3135, 0.2293으로 나타났다.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유효세율 1과 2는 감소하였으나 유효세율 3은 반대로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표 6> K-IFRS 적용 기업의 유효세율의 차이 비교

Panel A : 연결재무제표 기준

구 분	평 균		z(p-value) ⁸⁾
	K-IFRS	K-GAAP	
유효세율 1	0.2128	0.2170	-0.094(0.925)
유효세율 2	0.2515	0.3135	-0.722(0.470)
유효세율 3	0.2452	0.2293	-0.722(0.470)

Panel B : 별도재무제표 기준

구 분	평 균		z(p-value)
	K-IFRS	K-GAAP	
유효세율 1	0.1890	0.2113	-0.148(0.882)
유효세율 2	0.2613	0.2843	-0.363(0.716)
유효세율 3	0.2243	0.2096	-0.283(0.778)

반면 Panel B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유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1, 2, 3의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유효세율의 평균은 0.1890, 0.2613, 0.2243이고, K-GAAP를 적용한 경우의 유효세율의 평균은 0.2113, 0.2843, 0.2096으로 나타났다. 연결재무제표의 유효세율과 같이 별도재무제표 K-IFRS를 적용한 경우의 유효세율 1과 2는 감소하였으나 유효세율 3은 반대로 증가하였으며, 그 차이는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이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별도재무제표 모두 전체적으로 상장기업 수준에서는 K-IFRS의 기준이 K-GAAP의 기준에 비하여 유효세율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비모수검정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효세율은 분자인 법인세비용을 분모인 각 이익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으로 나눈 값으로 조기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비용의 감소와 각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의 감소로 유효세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발적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사전에 유효법인세율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8) 표본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검증방법이 아닌 비모수 검정방법인 Wilcoxon의 부호순위검정법(Wilcoxon's matched pairs signed rank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회계기준의 변화(K-GAAP에서 K-IFRS)로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법인세비용과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조기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환경의 변화로 정부의 조세정책입안자, 과세당국, 회계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제도의 변화는 회계정보의 질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조달,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기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K-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07년 11월에 제정하여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K-GAAP에서 K-IFRS로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사전공시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K-IFRS 도입 2년 전부터 K-IFRS의 도입현황,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의 회계정책과의 차이점, 연결대상의 변화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K-IFRS 조기 적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기간의 서로 다른 재무제표로 인하여 기업의 법인세비용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는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2009년의 조기 적용 기업 14개사와 2010년의 조기 적용 기업 47개사를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계정책의 변경(K-GAAP에서 K-IFRS)으로 인한 기업의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별도재무제표 작성기업의 경우 K-IFRS의 적용으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의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회계정책의 변경(K-GAAP에서 K-IFRS)으로 인한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기업집단을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모두 상장기업에서 K-IFRS의 적용이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항목의 변화뿐만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총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그리고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법률적, 조세적 방법으로 연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방안을 연구한 것이 주를 이룬 반면에 본 연구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K-IFRS의 도입이 기업의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유효세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K-IFRS 적용 이전에 직접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정책입안자나 회계연구원에게 K-IFRS 정착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유일한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K-IFRS의 도입시기인 2011년도 이전에 조기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기 적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었던 K-GAAP인 기업의 경우 K-IFRS와의 비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인한 표본수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K-IFRS를 조기 적용한 기업들의 경우 사전에 기업의 법인세비용에 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법인세비용과 유효세율의 분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선택적 편의(bias)를 배제할 수 없

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면 좀 더 유용하고 정보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김규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정교, “현금흐름개념과 재무비율 유형”, 『회계학연구』 제19권 제1호, 1984.
- 노현섭, “상장제조기업의 유효세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5권 제1호, 1997년.
- 노현섭 · 이승호 · 조상구, “유효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7권 제2호, 2007.
- 정운오 · 전규안 · 박종일, “K-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변하는가? : K-IFRS 조기도입기업의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2011.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기준”, 2009. 12.

2. 외국 문헌

- Balsari, C. K., S. Ozkan, and M. G. Durak, “Earnings conservatism in the pre- and post-adoption period in Turkey : Pael data evidence on the firm specific factors”, *Working Paper*, Dokuz of Economics, 2010.
- Barth, M. E., W. R. Landsman, and M. H.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2008.
- Devalle, A., R. Magarini, and E. Onali, “Assessing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data the international of K-IFRS in Europ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urin, 2010.
- Fullerton, D.,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al Tax Journal*, 1984.
- Gupta, S. and K. Newberry,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97.
- Omer, T., K. Molloy, and D. Ziebart,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1.

Spooner, G., "Effective tax rates from financial statements", *National Tax Journal*, 1986.

Stickney, C. and V. MaGe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82.

Tendeloo, B. V. and A. Vanstraelen, "Earnings management under German GAAP versus K-IF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ntwerp, 2005.

Wang, 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 1991.

Zimmerman, J.,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3.

<Abstract>

**Impacts on Corporate Tax and Effective Tax Rates
of IFRS Adopter of K-IFRS in Korea**

Kim, Jeong H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arly adopters of K-IFRS has been impacted by the changes in corporate tax and effective tax rates under K-IFRS in any significant way as compared to those under K-GAAP.

The main results of adopters of K-IFRS for 2009 and 2010 fiscal years are as follows : First, adopters of K-IFRS except deficit of companies income statement have decreased corporate tax as compared to those under K-GAAP effectually in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 Second, adopters of K-IFRS have no effect on effective tax rates as compared to those still under K-GAAP. These results contribute to research about how adopters are affected by the changes to accounting standards on corporate tax and effective tax rates but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of the small size.

▶ **Key Words** : K-IFRS, Effective tax rate, corporate tax

* Ph.D. graduated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